

노기원, 대구광역일보에 인격권침해 소송 패소 본지 임직원, 태왕 상대 법적 대응 전면전 선포

노기원 "본지 기사 모두 허위"다 소송 재판부, 사진신청 이유없다 기각 판결 12심패소 결국 상고포기...새국면도임

태왕이앤시 노기원 대표이사가 "태왕 노기원 정선카지노서 수십억대 도박의혹 등 6건의 기사가 허위"라며 대구광역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 판결을 받았다.

노 대표이사는 1심 패소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패소하자 상고포기를 했다.

노기원·박병준씨와 김수경 태왕이앤시 대표이사 등 3명은 인격권을 침해 당했다는 이유로 목적물의 가액 5000만원과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주장, 본지 각 기사 및 본지 각 블로그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구했다.

채무자 대구광역일보는 이 사건 결정 송달일로부터 5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의무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대구지방법원 제20-3 민사부(사건번호

2024카합10123)는 지난 9월6일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들과 채무자들의 지위, 고충무가 제기한 고소·고발 내용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배 채무자들은 지역 언론기관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다룬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불복, 노 대표이사 등 3명이 즉시

항고 했지만 대구고등법원 제11 민사부(사건번호 2024라 10124)도 지난 10월18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항고중 간접강제 부분을 각하한다. 채권자들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2심 재판부는 채권자들은 지난 9월11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간접강제 부분에 관한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간접강제 부분에 관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항고중 간접강제 부분은 부적합하다.

채권자들의 항고 이유는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해 살펴본다. "별지 기사 및 게시물의 삭제와 장래 게시금지를 명할 정도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 부분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노 대표이사 등 3명의 항고를 기각했다. 김성용 기자



울진군, 2024 죽변항 수산물축제 개최 올해로 4번째인 죽변항 수산물축제가 지난 8~10일까지 3일간 죽변항 일대에서 열렸다. 축제는 제철 대방어를 비롯, 청정 울진 바다의 신선한 수산물을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였다. 무엇보다 수산물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행사로 꾸며지며 울진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해양 자원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됐다. 축제 기간 수산물 및 건어물 판매 장터가 열리고, 직접 잡은 수산물을 손질해 맛볼 수 있는 맨손활어잡기 체험 등 가족 단위 관광객뿐만 아니라 친구, 연인과 함께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였다. (사진=울진군 제공)



세계최고 신비의 섬 울진... 호명관광여행사

여행안내 054-791-1717

단체장 일정



김경열 영덕군수는 11일 오전 영덕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제1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마당 행사에 참석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11일 청송읍 청운농장 등에서 열리는 2024 공공비축미곡 수매장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대구경북 행정통합...경북 학교 '줄초상'

김대일 경북도의원 경북균형발전 위해 도청이전 결정한지 10년도 채되기전에 행정통합추진 눈앞 이득판단 절대안돼

대구·경북이 행정통합 되면 경북의 작은 학교 다 사라지고 양질의 교육 보장 못해 곳곳에서 줄초상 난다.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터져 나온 말이다.

김대일 도의원(사진·안동3, 국민의힘)은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미온적인 행정통합 대응과 향후 추진될 교육정책의 문제를 집중 따졌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행정통합 내용에 교육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는 지난해 7월 1일자로 군위가 대구에 편입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군위의 작은 학교를 없애고 초·중·고 각 1개교씩만 남기고

통폐합한다고 밝히는 등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따른 경북교육청의 소극적 자세를 맹렬히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북교육청에서 핵심으로 추진하는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를 언급, 앞으로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했다.

답변에 나선 권성연 부교육감은 "2019년부터 추진해온 정책으로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된다면 작은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거점학교를 추진하게 된다면 경북만의 따뜻한 교육은 어렵다"고 꼬집었다.

행정통합 후 경북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악화도 도마에 올랐다.

경북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 규모, 2023년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을 예로 제시했다.

결국 "행정통합으로 경북 학생들의 교육의 질은 절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뼈있는 말을 했다.

실제 2023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

학교의 경우 경북이 11.5명, 대구가 13.7이며, 중학교는 경북이 9.7명, 대구가 11.3명으로 대구가 경북보다 많다.

때문에 김 의원은 "대구교육청은 군위가 편입된 지 1년 만에 거점학교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초·중·고 1개교만 남기고 군위 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군위군의 작은학교 모습이 통합 후의 우리의 미래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무엇보다 도내 학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중 초등학교는 285개교, 58.2%나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결국 행정통합 이후 대구교육청의 정책대로 통폐합이 진행되면 시군의 작은 학교 절반 이상이 사라진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이전을 결정한지 10년도 채 되기 전에 행정통합이 추진된다. 당장 눈앞의 이득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학생들을 위해 백 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용 기자

포항제철소=사고제철소 불명에 안아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 용융로서 폭발화재 8명사상 4년새 8차례 크고 작은 '火'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1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20분경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 용융로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이날 새벽 발생한 폭발이나 진동은 포항제철소 인근인 송도동·해동뿐만 아니라 흥해읍 등 포항 지역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

화재 당시 공장 내부에 있던 근무자 8명 중 1명이 다치고 7명이 다쳤다.

부상자 A(36)씨는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포항한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인력 206명, 장비 55대를 투입해 오전 6시37분경 불길을 잡았다.

불이 난 파이넥스 공장은 원료를 예비 처리하는 공정을 생각하고서 철광석과 유연탄을 바로 사용해 용광로(고로)처럼 찌꺼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포항제철소에 있는 다른 용광로 설비처럼 규모가 크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포항제철소는 2020년 6월13일 스테인리스 스틸 공장에서 불이 나 생산 설비가 불에 타는 등 현재까지 8회에 걸쳐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불은 포항제철소 내 3파이넥스 공장에서 큰 폭발음이 발생해 해도동·송도동 주민들은 물론 포항지역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했다.

2020년 6월13일 스테인리스 스틸 공장 불이 나 생산 설비가 불에 탔다.

2022년 태풍 '한남'의 영향으로 50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공장 대부분이 잠겨 49년 만에 전체 가동이 멈췄다.

지난해에는 4회에 걸쳐 불이 나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지난해 4월18일 포항제철소 내 3고로인 근부대 설비인 코크스 오븐 가스(COG) 승압장치에서 불이 났다.

불과 9일 이후 파이넥스 3공장 인근 원료 이송용 컨베이어벨트에서 화재가 났다.

같은 해 12월21·23일 사일로(60m)에서 철광석을 옮기는 컨베이어벨트에서, 2교로 주변에서 각각 불이 나 공장 가동 중단되는 피해를 봤다.

올해 2월15일에도 석탄 운반 시설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다. 이경수 기자

홍준표, "국힘 지도부...난파선 쥐떼 생각난다"

몽쳐서 위기 헤쳐나갈 생각보다 나 하나만의 일신을 위해...내부충질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국민의 힘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홍 시장은 10일 "몽쳐서 위기를 헤쳐나갈 생각보다 나 하나 일신만을 위해서 내부충질에만 집착하는 당 일부 지도부 모습을 보면서 꼭 난파선의 쥐떼가 생각난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탄핵 때 자기만 살겠다고 난파선 쥐떼처럼 탈출하는 군상들을 보면서 '이 땅의 보수우파들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요즘 하는 당 지도부 일부 모습들이 그때 바른정당 모습의 테자뉘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때의 쥐떼를 걷어내고 당을 새

롭게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새로운 쥐떼가 들어와 분탕치는 것을 보고 '참이당은 미래가 암울하다'는 느낌을 요즘 지을 수가 없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당도 정권도 무너진다"고 했다.

홍 시장은 "한번 참혹하게 당해 보고도 몽쳐지 못하고 또 다시 붕괴의 길을 걷는 그대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한다고 설치고 있는지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조여은 기자

月刊 정치와시림 곧 독자 곁으로 다가갑니다!

경북도 2025 예산 규모 최초로 13조 돌파

경북도 최대 현안사업
지방 소멸 대응 총매진
저출생...1500여억 투입
지방시대... 5조7100억



경북도의 최대 현안사업은 지방소멸대응이다. 인구감소를 막아야만 화려한 옛 용도를 부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철우(사진) 경북지사는 저출생 극복, 민간투자 마중물, APEC 성공개최,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에 중점 투자한다는 복안이다.

경북도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13조 2618억원으로 편성,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2025년 예산 규모는 올해 애초 예산 12조 6078억원보다 6541억원(5.2%)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6074억원(5.5%)이 증가한 11조 7267억원이다.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467억원(3.1%)이 증가한 1조 5351억원이다.

이 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5년에는 저출생과의 전쟁 본격 수행, 성공적인 APEC 개최로 글로벌 경북 브랜드 가치 격상, 1조 마중물 펀드 조성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북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도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1일 최종 확정된다.

■ 지속 가능한 미래세대 위한 예산

도는 지속적 성장동력, 경제위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력한 재정혁신과 공격적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최초로 예산 규모 13조를 돌파하는 성장

발전 기조를 이어갔다.

성과평가 미흡 이하 사업 20~30% 감액 및 3년 이상 지원 지방 보조사업 원점 재검토 등 성과 기반 구조조정으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했다.

도는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APEC 성공개최를 통한 경북 위상 강화 △1조 펀드 조성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실현 △BBC+E(배터리, 바이오, 반도체+에너지)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경북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마중물 예산안을 편성했다.

■ 저출생사업 1500여억원 투입

도는 "아이들 덕분에 행복할 경북!"이란 구호를 걸고 순항 중인 저출생과의 전쟁을 한층 Up-grade 한다.

이는 '저출생 극복 성공 신화'를 만들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다.

예산편성을 보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88억) △산부인·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42억) 등 행복출산사업에 570억 △K-보듬 6000 육아친구 확산(473억) △공공형어린이집지원(73억), 통합돌봄클러스터 건립지원(40억) 등 안전돌봄사업에 1168억원을 쏟아붓는다.

도는 △매입임대주택공급지원(125억), 청년신혼부부월세지원(27억) 등 안심주거사업에 164억원을 투자한다.

만남지원사업에 4억원, 일생활균형사업에 37억원, 양성평등사업에 30억원 등을 투자한다.

일반회계 예산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저출생극복성금을 적극 활용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 우리동네야외교실 등 25개 사업 60억원을 투입해 저출생 극복을 지원한다.

■ '저출생과 전쟁' 승공에 돌

경북도의 '저출생과 전쟁'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저출생과 전쟁 필승을 위한 100대 실행 과제의 진도율은 91%, 추경으로 1100억원이 투입된 예산 집행률은 79%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흡한 과제 9%는 하반기 본격 시행 과제와 법 개정 사항 등으로 추진에는 큰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100대 과제 가운데 '만남 주선' 분야에서는 정춘동아리 활동 271(100명, 매칭률 48%), 솔로마을 171(26명 매칭률, 46%)를 운영해 평균 47%의 높은 매칭률을 올렸으며 결혼으로 골인한 커플이 4쌍 탄생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행복 출산' 분야에서는 산모 건강 회복을 위해 등해 특산미역 5600명,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 2850명, 어촌마을 태교 여행 184명을 지원하면서 임신부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올해 핵심 사업으로 '김천의료원 분만산부인과'와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를 개소해 분만 50건, 신생아 124명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소중한 생명을 안전하게 낳고 진료했다.

'완전 돌봄' 분야에서는 공동체 마을 돌봄 모델 1호점 경산을 시작으로 총 30곳이 개소해 24시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돌봄버스도 도청 신도시에 운행하고 있다.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를 기존 구미·예천·안동 3곳에서 포항·상주·칠곡·경산·김천·영주 등 9곳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인신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1만 3263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했다. 11월부터는 최대 월 30만원 24개월로 확대 지원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올해 7억원을 지원했다.

청년 부부 15가구를 선정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APEC 성공개최 2000여억

도는 APEC 정상회담을 성공 개최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K-한류 문화 우수성 확산, 대한민국 미래산업 글로벌 진출 교두보 마련 등 경주가 가진 천 년의 역사와 문화, 대한민국을 지켜온 경북의 힘으로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투입한다.

도는 △컨벤션센터 터미널링(244억), 주차시설·전시·행사장 정비(421억), 숙박시설 리모델링 및 숙식 지원(71억), 자원봉사 운영 등(48억) APEC 정상회담 성공개최 지원에 885억원을 직접 투자한다.

△외교·문화부 등 중앙부처 추진 사업으로 APEC 민청장 조성 등 4개 사업에 1101억원을 투입한다. 이뿐 아니다.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APEC 기념공원과 기념관 건립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국비 1744억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국비 확보 전망담을 국회에 상주시키며 전력을 다하고 있다.

■ 경북 주도 지방시대 5조 7100억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경북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추진한다.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지속 가능한 발전 도대 마련에 집중 투자한다.

도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 체계(1622억), K-과학마을 조성(388억), K-U 시티 정주환경 조성(21억), K-U 시티 지역산업기반 연구지원센터 건립(19억) 등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도대 마련에 3451억원을 투입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가지방도 확충 및 정비(1986억), 전기자동차 보급(1205억), 도시재생 뉴딜(358억),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367억) 등 지속 가능한 발전 경북기반 조성 등에 1조 7882억원을 투자한다.

도는 △기초연금 지원(1조 7194억),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6768억),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1929억) 등 모두가 안심하는 책임 복지 지원에 3조 2735억원을 집중 쏟아붓는다.

도는 △지방의료원 경영혁신지원(76억), 권역 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108억),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43억), 의료인력인건비 지원(80억) 등 지역 의료 체질 개선에 1962억원을 투자한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73억),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업체 이차보전(40억),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30억), 상권 르네상스 지원사업(25억) 등 소상공인 성공 기반 조성에 369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청년 월세지원(78억), 청년 도전지원사업(12억), 청년성장프로젝트(6억), 청년예꿈수당(8억) 등 청년의 꿈 실현 지원에 665억 등을 투자한다.

■ 미래성장동력 1조 5600여억

도는 경북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

한다. '경북의 미래성장엔진 BBC+E' 기술주도형 산업 대전환' 등 주력산업 생태계에 전방위적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도는 △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52억), 동물용그린바이오의약품산업화 거점 조성(42억),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 평가설비 구축(31억), 첨단방위산업용 시스템 반도체 실증기반 구축(7억), 수소 연료전지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25억) 등 지역주력산업 강화와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BBC+E)에 1035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농촌공간조성(257억),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47억),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199억), 조사료생산지원(66억), 축산악취개선(20억) 등 경북 농·축산업 대전환 조기 실현에 1조 1326억원의 예산을 퍼붓는다.

도는 △정액세금 가꾸기(417억),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135억), 어촌신활력증진사업(282억) 등 산타입업대전환 추진 등에 2786억원을 투자한다.

도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218억), 지역혁신센터 체 도펀드(17억), 지역산업활력 R&D 펀드(159억), 경북형지역뉴딜센터 펀드(9억) 등 1조 민간투자펀드 프로젝트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에 392억원을 투자한다. 김성용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부사장 조여은 | 편집국장 김현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시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 부 5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석구석 95% 따뜻해졌습니다!

사랑의열매는 전국 약 3만 개 협력기관들과 함께 기부금의 95%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세상 구석구석 전해진 따뜻한 온기, 올해 사랑의열매가 맺은 또 하나의 사랑의열매입니다.

2023년 모금금액 8,305억

2023년 지원금액 7,446억

지원 대상	노년/보노	유아	장애	여성/여성	노년	장애인	기타
	1,719	1,010	486	379	1,787	1,792	273
지원 분야	3,882	939	615	450	382	755	240
	183						

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해당 지원내역은 2023년 사랑의열매 나눔기부금입니다. 지난해 7,446억 원으로 전국 3만 개 기관과 함께 43만 명의 이웃을 지원했습니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3871억 투입

울진 원자력 청정수소 대량생산 최적지 도시 신항을 1,2호기 준공... 3,4호기착공 청정수소 경제 중심도시 발돋움

울진군이 대규모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기지 조성사업 추진에 힘찬 시동을 걸었다.

신항울 1,2호기 종합준공과 3,4호기 착공으로 청정 수소 경제 중심도시로 힘차게 뻗어나간다.

군은 지난 8~10일까지 3일간 열린 죽변항 수산물축제에서 울진 수소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부스는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울진군이 추진하는 수소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이를 통해 기업 입주 수요 확보를 목표로 한다.

울진의 풍부한 수산물 자원과 청정 자연환경을 함께 경험하며, 산업단지가 제공할 수 있는 환경적 혜택 또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홍보부스는 울진군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소산업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

손병복(사진) 울진군수는 2040년 '인구 10만 명, 지역 총생산 11조원'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다.

현재 울진 인구는 4만6000여명, 지역 총생산 2조원이다.

■청정수소 경제 중심지 도약

울진군은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청정 수소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한다.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울진군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 6일 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으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착수보고회는 정부의 '국가첨단 산업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의 사업계획을 구체화한다.

울진군이 동해안 수소 경제벨트 산업클러스터 허브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계획 마련의 시작을 보고하는 자리였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대에 152만㎡ (46만평) 터에 3871억 원을 쏟아붓는다.

원전 연계 수소 대량생산 기지를 구축,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용역으로 울진군은 LH와 협력, 2025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완료한다.

정식 산단승인신청을 하고 착공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한층 더 속도를 낸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성공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 수요와 주민의견을 반영, 합리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의 시적 적극적으로 대응,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까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항울 3,4호기 건설 파급효과

신항울 1,2호기 종합준공과 3,4호기 착공으로 최근 체고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함께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로 가는 디딤돌을 마련했다.

지난달 30일 울진군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지역주민, 원전산업 관계자와 원자력 관련 학과 대학생, 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초청, 신항울 1,2호기 종합준공과 3,4호기 착공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 산업부장관, 한수원 사장과 국내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그동안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신항울 3,4호기 건설 현장을 찾아 '신항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대선 당시의 약속이 지켜진 현장을 약 3년 만에 다시 찾은 것이다.

신항울 3,4호기는 대통령 당선 후, 관계 부처와 지자체들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평균 30개월이 걸리는 인허가를 11개월 만에 신속하게 처리해 마친내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은 "신항울 3,4호기 등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해외 원전 수주와 국내 SMR 건설 추진으로 원전 업계에 충분히 일감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의 미래가 정치로 인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신항울 3,4호기 건설은 약 720만 명(APR1400 기준) 이상의 연인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다.

건설 인력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지역 업체의 자·간접적인 공사 참여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가 예상된다.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크게 단기와 장기로 구분된다.

단기적 지원으로 특별지원금이 있다.

건설비에서 더 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책정과 원전 9기 이상의 0.5%가산이 지원된다.

신항울 3,4호기 기준 건설비는 약 11조 5000억 원으로 약 2300억 원이 산정된다.

장기적 지원으로는 사업자지원비와 기본지원비, 지역지원시설비가 있다.

사업자지원비와 기본지원비는 각 전전년도 발생량 1kwh 당 0.25원으로 사업비를 책정한다.

건설 기간을 포함, 가동 기간 60년 동안 지원된다.

이용률 80% 기준 신항울 3,4호기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해 약 6000억 원(사업자3,000억 원+기본지원 3,000억 원)이 지원된다.

지역지원시설비는 원전가동기간(60년) 동안



납부되는 세금이다. 당해발전량 1kwh당 1원으로 산정한다. 신항울 3,4호기 가동시 60년간 약 1조 1700억 원을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신항울 3,4호기 건설은 단순히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와 에너지 자립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손 군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울진군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나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항울 3,4호기 건설을 통해 더욱 발전하고, 번영하는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경수 기자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정한 슬로건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청송 울릉

울릉오징어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2024 전국중요어업유산 울릉도대회
울릉오징어어업 등 어업유산 발굴...

‘2024 전국중요어업유산 울릉도대회’가 지난 7일 울릉 한마음회관에서 열렸다. 대회는 동해안 최초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인 울진-울릉돌곶대배채취어업의 인식 확산과 국가중요어업유산 간 교류 활성화, 울릉도오징어어업 등 지역의 어업유산 발굴을 위해 열렸다. 무엇보다 올해 이례적인 수온상승으로 울릉도 어업인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어업인들이 매우 힘든 시기에 행사가 열려 위안이 됐다. 이날 △제주 △보성 △통영 △거제 △울진 등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지역 어업인 등이 참석했다.

학술심포지엄, 기념식, 섬과 바다음식 체험전 등 울릉에서 처음으로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국가중요어업유산 울릉도 대회로 상호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어업유산의 적극적 활용과 함께 대배돌미역채취업, 오징어어업 등 울릉도의 어업적 가치를 외부에 적극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오징어어업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노력으로 지역의 전통 어업과 문화를 잘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제주지사, 이상휘 국회의원 등은 영상으로 축하했다. 1부 학술심포지엄은 기후위기 시대, 국가중요어업유산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

수산회 류정곤 수산정책연구소장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가치와 방향’, 전남대학교 김준교수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위기와 대응’을 강연했다. 심포지엄에서 류정곤 수산정책연구소장은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적극적 활용이 보전의 최선이며 어업유산간 국내외 네트워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준교 교수는 어업유산의 위협요인을 진단, 어업유산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김윤배 대장은 기후변화와 해양정책에 따른 섬의 변화과정 및 일제강점기 우리 어업이 전통기술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적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울릉도오징어어업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2부 기념식에서는 국가중요어업유산 관련 공모전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과 함께 13개 국가중요어업유산 관계자의 어업유산 소개, 제주 차귀도 해녀소리 보존회 및 울릉도 섬음림합창단의 축하공연 열었다. 3부 섬과 바다음식 체험전에서는 국제슬로푸드 한국협회 울릉군지부의 대항남, 오징어누런장, 옥수수엿청주 등 다양한 울릉도 토속요리 체험과 함께 호텔신라 총괄셰프를 역임한 서상호 셰프, 오뚜기 중앙연구소 이우석 셰프가 울릉·독도의 다양한 재료를 버무린 부지깅이두부찜, 울릉명이납작만두, 독도해조류국수 등을 선보여 참석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행사는 울릉군 및 경북도 주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및 현대해양 주관, 해양수산부 후원으로 열렸다. 정윤환 기자



청송군수기 게이트볼대회

10회 청송군수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가 지난 7일 청송군민운동장 특설경기장에서 열렸다. 청송군게이트볼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관내 20개 팀, 15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 기량을 겨뤘다. 참가자들은 서로 간의 응원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이어가 승패를 가리는 대회를 넘어, 참가자들 간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장이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게이트볼은 어르신들이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생활체육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도 게이트볼의 저변 확대와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덕, 페트병 분리배출 참여 (투명)

영덕군은 보다 고품질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새달 31일까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집중 홍보한다. 홍보 활동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해 인식 전환의 미흡, 혼합 배출 지속 등의 문제를 알린다. 군은 관내 클린 하우스 등에 홍보 안내문을 게시,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과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의 이로움을 홍보한다. 김명희 환경위생과장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원 순환이 환경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제가 되기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정착시켜 재활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진, 김현규 장관 묘제

김현규 장관 묘제 및 무후제 봉행식이 지난 7일(음력 10월 7일)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중심 김현규 장관 묘소 및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관내 기관·단체장, 노인회장, 리장, 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일제 강점기 왜적을 상대로 의병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김현규 장관의 애국충정의 얼을 되새기고, 후손 없이 귀중한 재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헌납하고 별세한 무후 어르신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매년 음력 10월에 택일, 22신위를 추모하는 제사를 지내고 있다.



영덕군, 2024년 산불감시원 발대식 개최
영덕군은 ‘2024 영덕군 산불감시원 발대식’을 열고 산불방지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산불감시원들은 산불방지 최일선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영덕군 제공)

울진군, 혁신 인재 양성 ‘매진’

울진군은 2024 하반기 직급별 역량강화교육을 11~29일까지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서 한다. 교육 대상은 울진군청 직원 600여명이다. 하반기 직급별 역량강화교육은 직급별로 요구되는 맞춤형 교육 기회의 부재를 극복하고, 각 직급에서 요구되는 지도력 및 직무 역량을 향상한다. 교육은 △5급 이상 공무원 대상 간부리더십 역량강화 교육 △6급 대상 중간관리자 핵심역량강화 교육 △7급 대상 중급행정 역량강화 교육 △8급 대상 행정실무 역량강화 교육 △9급 대상 기초행정 역량강화 교육 △공무직 대상 직무 및 소양 역량 강화교육 △공직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감동주는 행정을 위한 민원응대 등이다. 군은 오는 11~15일까지 신규임용공무원 27명을 대상으로 신규공직자 온보딩 교육도 결별한다. 직무·내부교육, 현장체험학습 등 일주일간 사전교육을 통해 행정조직의 빠른 적응 유도와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한다. 올바른 공직생활과 가치관 정립을 위해 ‘꿈은 이뤄진다’라는 주제로 군수 특강도 함께 진행, 신규직원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상호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앞으로 군은 공직자 직원교육 운영방안으로 변화하는 행정업무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 신규 공직자의 공직생활 적응을 위한 임용 예정자 사전교육 및 지역현안 문제 대응을 위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직원교육을 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일 잘하는 공직자 양성을 위해 맞춤형 역량강화교육 구성·운영에 철저를 가하겠다”라고 했다. 이정수 기자

청송군,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청소년~어른까지 사로잡은 에너지 ‘확’ 찬 무대 선보여

청송군이 마련한 ‘청소년 어울마당’(부제: 청소년의 끝없는 비상이 막내렸다). 행사는 지난 3일 제18회 청송사과축제와 함께 열렸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개진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 ‘청소년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 공연을 기획

한 축제의 장이었다. 행사는 예선심사를 거친 8팀(노래, 밴드, K-POP 댄스 등)이 무대에 올라 각각의 다채로운 재능을 뽐냈다. 사이모창가수 사이렌이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사로잡은 에너지 ‘확’ 찬 무대를 선보였다. 행사는 어른들 위주의 공연과 무대로 채워졌던 기존의 축제에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소년들이 가진 무한한



끼와 꿈이 담긴 무대를 잘 봤다. 앞으로도 청송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며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영덕군민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갈채’

드보르작 등 정통클래식 가요, 뮤지컬 넘버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 선보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이 마련한 영덕군민오케스트라의 창단연주회(11월7일)가 성황리에 막 내렸다. 영덕군민오케스트라는 영덕군민 중 개인 악기를 소지, 연주 가능한 클래식 애호가들이 지난해 7월 3일 자발적으로 창단한 예술단체이다. 클래식 비전공자가 대부분으로 초등학교생부터 70대까지 “실력보다 열정”이란 신조로 결성됐다. 창단 첫해부터 ‘2023영덕업사이클링아트페스타’ 폐막식에 초청돼 데뷔 무대를 갖고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예주문화예술회관 20주년을 기념하는 ‘영덕군 신촌음악회’에서 경북도립교향악단과 합동연주를 했다. 지난 3일에는 ‘2024업사이클링아트페스타’ 폐막 무대에도 올라 9일간의 축제를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공식적인 첫 활동이 된 이번 창단연주회에선 요한 슈트라우스, 하차투리안, 오펜바흐, 드보르작 등 정통 클래식 곡과 팝, 영화음악, 가요, 뮤지컬 넘버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영덕군민오케스트라가 1년 3개월 만에 현재의 수준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이탈리아 유학파 김석구 지휘자와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만나 연습에 매진했던 단원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로 평가된다. 김석구 지휘자를 중심으로 젊은 연주자들이

단체에 합류하면서 일반 단원들의 실력이 크게 향상됐고 현재 풀오케스트라의 진용도 갖추게 됐다. 앙코르 무대까지 관람한 축산면의 한 주민은 “대부분 단원들이 직장인이고 초등학교생도 있는데 창단 1년여 만에 높은 수준의 음악을 들려줘서 놀라웠다. 영덕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더 자주 만나고 싶다”는 기대를 전했다. 김미경 단장은 “앞으로 영덕군민들에게 더 멋진 공연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영덕군민오케스트라 단원은 수시로 모집 중이다. 참여를 원하거나 관심 있는 주민들은 영덕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팀으로 (054-730-5830) 문의하면 된다. 김성용 기자

포항시, 노인 일자리 ‘신바람’ 난다

제7회 포항 60+취업 한마당 600여 명 구직자 참여 활기

‘제7회 포항 60+ 취업 한마당’이 지난 8일 포항체육관에서 열렸다.

행사는 포항일자리창출시니어클럽이 주관,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 제2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날 20개의 업체와 6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활기를 더했다. 현장 면접과 채용 정보 제공,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사업 안내를 위한 20개의 기업 부스가 운영됐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일자리 사업과 홍보를 위한 부스가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포항일자리창출시니어클럽은 이번 박람회로 계기로 노인 인력풀(Pool)을 구성,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한다. 이정수 기자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경산 나누미봉사회, 장학금

(재)경산시장학회는 나누미봉사회가 8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50만 원을 기탁했다.

황명순 회장은 "약소한 금액이지만 봉사회 회원들의 뜻을 모아 기탁하게 됐다. 함께하는 회원들에게 감사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쫓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일 이사장은 "나누미봉사회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바쁜 가운데에도 인재 육성에 뜻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성심을 다해 장학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경산시 중앙동에 위치한 나누미봉사회는 여러 차례 장학기금을 경산시장학회에 기탁해 학업 환경 조성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영천시 대창면 목요일회의

영천시 대창면은 지난 7일, 대창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관내 기관·단체장 회의인 '목요일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2월 초 예정된 대창면 주민자치 교양강좌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 등의 행사 계획을 알리며, 금호대창IC 하이패스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대구 군부대 영천 유지의 필요성과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최종 선정에 따른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회의 종료 후, 대구 군부대 유지 구호를 함께 제창하며 결의를 다졌다.

박상우 대창면장은 "항상 대창면민을 위해 힘써주시는 목요일회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대창면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간관광' 특화 성주군... 아시아 시장 개척

최근 타이베이 국제여전 참가 소도시 이색 야간관광 홍보 홍보자료집 별도 제작·배포



국내 유일 강소형 야간관광 특화도시인 성주군이 해외 방한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주군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2024 타이베이 국제여전(ITF)'의 유일한 군 단위 소도시로 참가, 대만 방한관광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군은 첫 해외 방한관광 유치 활동을 위해 만전의 준비를 하였다. 대만어로 제작된 최신 성주군 야간관광 홍보물(B2C)과 현지 유관업체 대상 야간관광 홍보자료집(B2B)을 별도로 제작·배포하였다. 성주군만의 캐릭터 '잠벌이'를 활용한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운영, 현지인들과 여행업체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현지 여행업계는 성주군의 여행상품개발 독려

와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관광업체 실무자를 위한 야간관광 자료집(B2B)'에 큰 관심을 보였다. 자료집에는 신규 야간콘텐츠, 관광지, 추천 여행코스, 숙박, 교통, 먹거리 등 성주군

상품개발을 위한 상세정보를 모두 담고 있다. 이는 개별여행(FT) 시장 확대에 따른 B2C 시장 공략과 함께, 소도시의 핸드캡인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와 해외 단체관광객 부재 극복을 위한 현지

여행업계 대상 전략적 홍보·마케팅의 일환이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대만은 2024년 방한 외래관광객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며 엔데믹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 타이베이 K-관광 로드쇼 조사에서는 향후 3년 내 한국 여행 시 서울 외 도시도 함께 방문하겠다는 응답이 84.5%에 달해, 새로운 즐거움을 원하는 대만 관광객들의 소도시 관광 수요와 관심을 입증하였다.

대도시를 벗어나 소도시만의 매력을 찾는 로컬관광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북권 유일의 야간관광 특화도시 성주군은 이색적인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관광산업 육성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야간관광 등 체류형 관광 기반 마련을 통한 생활인구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도재훈 기자

경산시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중간보고회

투명 행정 실현 구축 진행 공유 데이터 통합 데이터마트 구축

경산시는 7일 경산시청 소회의실에서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산시 데이터 기반 행정 인프라 조성을 위한 첫 단계다.

보고회에는 윤희란 부시장을 비롯해 빅데이터 시각화 분석과 관련된 국장, 본부장, 부서장 및 사업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데이

터 기반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한 플랫폼 구축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경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마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데이터를 보다 쉽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며, 경산시 특성에 맞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중간보고회에서는 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콘텐츠별 데이터 연계 방안과 데이터 적재 방법에 대

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사업 수행사인 ㈜에스오씨소프트는 경산시 데이터 지도 구축 현황, 부서별 인터뷰 결과, 빅데이터 분석 내용, 행정 업무 간소화 공모전 진행 상황 등을 발표하고, 경산시의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윤희란 경산시 부시장은 "이번 데이터 통합 플랫폼 중간보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잘 반영해 완성도 높은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들에게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도읍 행복나눔 작은 음악회

청도읍 청도읍에서는 지난 6일 청도읍 새마을공원에서 김하수 청도군수, 전종술 청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도읍 행복나눔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청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한 이번 음악회에서는 색소폰, 국악, 통기타, 트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뿐만 아니라 먹거리 나눔과 어르신 건강상담, 세계문화체험, 달고나 만들기 등 호응을 얻었다. 또한 행사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함께 노래 부르고 기부금 100여 박스로 만든 리본트리를 설치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다. 조여은 기자

국립청도숲체원 특별한 '숲속 결혼식' 진행

사회공헌 사업 인구문제 극복 취지 국립청도숲체원 산림교육팀 축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청도숲체원에서는 8일 울금불꽃 단풍으로 물든 가을 속 영남알프스 숲을 배경으로 특별한 '숲속 결혼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숲속 결혼식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를 대상으로 인적·물적 자원 및 산림복지시설을 적극 활용해 지원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국가 혼인을 하려다 지출생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결혼식의 주인공은 경중의 지적장애가 있는 신부 김O자님과 신랑 김O훈님으로, 2년 전 울금불꽃 단풍이 피기 전 인연을 맺었으나 어려운 여건으로 결혼식을 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이번 숲속 결혼식에 지원해 최종 선정되었다.

결혼식은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신랑·신부의 입장을 시작으로 혼인서약 낭독, 서로를 위한 마음이 담긴 결혼예물 교환, 축사 및 축하, 기



념 촬영, 피로연 등으로 진행됐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국립청도숲체원 산림교육팀은 축하를 준비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물했다.

신부 김O자님은 "어려운 여건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는데 국립청도숲체원의 도움으로 아름다운 결혼식을 진행하게 돼 감사하다"며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는 작은 소망을 이루었다"고 행복한 모습으로 소감을 전했다.

임용진 국립청도숲체원장은 "아름다운 가을 햇살과 청도숲체원의 자연 풍경 속에서 숲속 결혼식을 통해 부부와 하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칠곡군수, 현안 사업 추진 국비 확보 홍보

도의원 등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김재욱 칠곡군수가 지난 5일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방문해 칠곡군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홍보에 나섰다.

김 군수는 이상승 칠곡군의회 의장, 박순범, 정한석 경상북도의원 등 30여 명과 함께 정회용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비가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총 사업비 1조4천8백억원 규모의 32건의 국비사업과, 10건의 현안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국도4호선 중앙교차로 교차로 개선 △양방바이오회차유선업 혁신센터 조성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역사관 건립사업 등 핵심사업에 대해 국비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바르게살기운동 고령군협, 경북도대회 참석

운동 중앙회장 등 각종 표창 수상

고령군은 바르게살기운동 고령군협의회가 지난 6일 상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회대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위 행사는 바르게살기운동의 추진 성과를 결산하는 자리로 각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속감과 사명감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와 지역 화합에 기여한 인사들이 행정안전부장관, 경상북도지사,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회장 등의 각종 표창을 수상하며 1년간의 노고를 인정받았다. 배영백 기자

Advertisement for '농지' (Farmland) with details on support, eligibility, and application. Includes logos for Fb and KFF.

구미 김천 문경 상주의성

해외 사업장 둔 구미 기업... 국내복귀 지원



문경 옛날잡쌀떡, 성금 기탁

문경새재 옛날잡쌀떡은 지난 7일 성금 200만원을, 새재당은 성금 300만원을 문경시에 기탁했다. 문경새재 옛날잡쌀떡은 수제잡쌀떡 달인으로 인기 프로그램인 1박2일, 모닝와이드, 전국시대 등 다수 출연하며 문경의 전통 먹거리를 널리 알린 바 있다.

새재당은 최근 제3회 푸드페스티벌 간식류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두 사람은 부지기간으로 함께 문경시에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는 나눔을 실천하였다. 권영길, 권오재 대표는 입을 모아 "문경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이번 성금을 기탁했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천 열린어린이집 3곳 추가

김천시는 지난 11월 7일, 2024년 열린어린이집 3개소를 신규 선정하고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현판을 수여했다.

'열린어린이집'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의 개방성(보육실 창문의 투명성 확보 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 확대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의 운영형태로 학부모·어린이집·지역사회가 함께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2024년 열린어린이집은 22개소(신규 선정 3개소, 재선정 19개소)가 신청하여, 21개소(신규 선정 3개소, 재선정 18개소)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현재 총 3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선정시 복귀 투자보조금 지원 KOTRA 신청·심사 통해 선정 법인세·관세 감면 등 세제 혜택

해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구미시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산업부, 경상북도, KOTRA, 구미시가 함께한 국내복귀기업 설명회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지난 8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마·중 갈등,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해소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이전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국내복귀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국내복귀기업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

영하고 해외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가 대한민국 법인(개인)일 경우, 해외사업장의 구조조정(정산, 양도, 생산량 축소(매출액25% 감축))과 함께 국내사업장 투자시, 해당 기업이 KOTRA 신청·심사를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사·선정된다.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면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지원, 법인세·관세 감면 등 세제 지원, 신용·기술 보증 등 금융지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컨설팅 등의 혜택이 있다.

이남익 경상북도 공향투자본부장의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KH바텍 등 10개사 임직원, 구미시 경제국장, 산업통상자원부 국내복귀지원 담당 주무관, 코트라 국내복귀지원팀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코트라의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설명, ㈜KH바텍의 국내복귀 성공 사례발표, 기업 의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되었다. 송명주 기자



의성군,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평가 성과

'비안만세센터' 운영 관련 발표 성공 노하우 등 각 지역에 전달

의성군은 지난 7일 지방시대위원회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주최하는 '2024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에 참석하여 산업부장관 기관 표창과 자율계정 우수사례 유공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개인 표창 등을 수상했다. 우수사례 성과발표회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우

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사업수행 주체의 자기진작을 도모하는 등 성과가 환류되어 각 지역이 영점을 가지고 균형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균형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전년도 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의성군의 대표 우수사례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한 '비안만세센터'로 비안만세센

터 김수영 위원장이 만세센터 운영에 관하여 발표를 진행했고 우수사례의 성공 노하우와 스토리를 각 지역에 전달했다. 비안만세센터의 사례가 의성을 넘어 전국 농촌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수상을 통해 앞으로도 의성군이 보유한 많은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촌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의성군, 안정2리 노후관 교체

의성군은 우수물 제고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안계면 안정2리 일원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완료했다.

군은 상수도 관로 노후로 인한 민원다발구역인 안정2리 마을에 노후상수도관 2.89km를 교체, 연간 약 6만톤의 누수량 절감을 통해 연간 약 3.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성군은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를 통해 노후관로 교체 및 관망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공급함으로써 주민 복지 실현에 총력을 다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성 기자

제 74주기 문경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합동위령제

유족회원 등 80여 명 참석 '명예 회복·진상규명' 노력

문경시는 지난 7일 한국전쟁 시기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학살당한 국민보도연맹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제74주기 문경시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유족회원과 내빈 등 8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추모제, 유족대표 인사, 추모사 낭독,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국가에서 1949년 '잔존하는 좌익세력을 보호·지도한다'는 명분으로 좌익포섭단체로 만들었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들을 소집해 집단 학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진실이 규명되었으며, 2009년 4월 구성된 문경시국민보도연맹 유족회는 2010년부터 매년 합동위령제를 열고 있다.

김윤진 문경시 국민보도연맹유족회장은 추모사에서 "오늘 위령제를 통해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릴 수 있길 바라며,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현국 시장은 "7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슬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편히 눈감지 못하였을 영령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자유총연맹 문경, 서봉기 마라톤대회 봉사활동

전국 각지 600여 명 참여 차량통제·주차장 안내 등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는 지난 8일 문경시내 일원에서 개최된 제35회 서봉기 단축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전국 각지 600여 명의 선수 및 가족, 지도자 등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에 참석한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 여성회원 30여 명은 출발지점과 끝인지점, 반환점 등 곳곳에서 차량통제와 교통정리, 주차장 안내 등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평소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는 시민들의 국가안보의식을 고취하여 자유 민주주의 체제수



호에 앞장서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지역민의 행복과 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선아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 여성회장은 "문경지역을 찾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기억을 가지고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1370 프로젝트' 상주쌀 소비촉진행사 개최

사)한국여성농업인 상주시연합회는 상주쌀 소비 촉진 홍보를 위해 대학 수능시험 일주일 전인 지난 7일에 관내 고등학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1370 프로젝트 상주쌀 소비 촉진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1370 프로젝트는 삼시세끼 밥먹기를 통해 연간

1인당 70kg의 우리쌀을 소비하자는 상주쌀 소비 촉진행사로 2019년부터 사)한국여성농업인 상주시연합회에서 상주쌀 전통음식 시연회, 홍보 캠페인 등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 고등학교 수험생의 합격기원을 위해 한해동안 준비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상주 쌀로 만든 참쌀떡 및 식혜를 전달하여 수험생들을 응원하였다.

사)한국여성농업인 상주시연합회 조유경 회장은 "요즘 젊은 세대 들은 쌀밥보다 빵을 더 선호하고 있어 1인당 쌀 소비량이 해가 거듭될수록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구미시 www.gumi.go.kr

인재와 충절의 고장 구미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영양



안동, 독거노인 반찬 지원

안동시 옥동은 11월 7일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나오' 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50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안부를 확인하고 밑반찬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만나오' 사업은 도원교회 예산으로 반찬재료를 마련하고, 반찬용기는 옥동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행복금고 사업비로 구입한다.

옥동 마을복지계획 김희동 추진단장은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요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주시 직원 유전리 등 일손 돕기

영주시청 직원 160여 명이 8일, 순흥면 배정리·덕현리와 봉현면 유전리 일대에서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찾아 시과 수확 작업을 지원했다.

영주시는 지난달 2일부터 읍면동을 통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추천받아, 우선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영농 취약 농가 4곳을 선정해 지원을 이어왔다.

시가 추진 중인 '가을철 농촌일손나눔'은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와 농번기 일손 부족 완화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관기관, 농협, 민간단체 등을 포함해 351명이 10개 농가를 방문하며 도농 상생에 기여하고 있다.



예천군가족센터 연탄 나눔

예천군가족센터는 8일 오전 9시 30분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안동지부와 함께 취약·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연탄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안동지부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꾸준히 연탄나눔을 실천해왔으며, 이번 연탄나눔은 예천군가족센터 사례관리 대상 중 연탄이 필요한 취약·위기가족 3가정에 총 1,000장의 연탄을 지원했다.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안동지부장은 "예천군에 거주하는 취약·위기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따뜻함을 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양군 취약지 생활개선... 주민 만족도 UP

지방시대위원장 표창 수상 성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 공유 취지 생활안전 인프라·주거환경 개선 "지방소멸 극복 마중물 역할 수행"

영양군은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산해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지방시대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9년부터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 공유 및 사업수행 기관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최하고 있으며, '지방시대 엑스포'와 연계하여 타 시군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산해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젊은이의 웃음과 활력이 피어나는 힘찬 산해마을'을 주제로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2,036백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이미지 개선 및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마을 공동작업장과 소통 공간 조성, 마을 고유 분위기를 반영한 담장 설치, 차별화된 조경물 설치 및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양군은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산해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지방시대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오도창 군수는 "지역개발사업에서 주민역량은 매우 중요하며, 주민 주도의 지역개발 사업만이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생활여건이

취약한 마을들을 발굴하여 차별화된 공간 조성으로 지방소멸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양군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

사업)'을 민선8기 영양군수 공약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11개 지구 추진으로 경북에서 최다 선정되었다. 권윤동 기자

효 문화 재해석...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운영

지난 2012년 정부 공모 선정 3대 가족 효 문화 체험 시설

'선비의 도시' 경북 영주시에 전통 효 문화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효의 가치를 국가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갈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이 문을 열었다.

8일 오후 2시,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박남서 영주시장을 비롯해 영주시의 회 의원, 학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진흥원은, 지난 2012년 정부 공모에서 대상지로 선정됐다. 2016년 착공해 총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

되어 지하 2층, 지상 1층, 연면적 1,762.44㎡ 규모로 건립됐다. 2018년 시설을 준공 이후, 지난해 영주시 출연의 독립법인으로 출범했다.

진흥원은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3대 가족이 함께 효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하 1층 교육체험실은 효의 기원과 한국 효사상의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시설로, 위인들의 효 이야기, 현대 효, 세계의 효 문화를 아우르고 있다.

지상 1층에서는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효 교육, 청소년 대상의 인성교육, 예비 부모를 위한 교육법, 노년층을 위한 웰다잉 프로그램 등 폭넓은 연령대의 효 관련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진흥원은 이동이 어려운 지역 내 초·중·고

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효 프로그램'을 운영해 효 교육의 접근성을 높인다.

진흥원은 인근의 선비촌과 선비세상 등과 연계하여 상설·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체험형 체험관광 명소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학생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교육적으로 유익한 관광 명소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박남서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이사장은 "효라는 우리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새로운 국가 브랜드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흥원이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을 이루는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상기 기자

영양군, 농산물 유통기업과 협력 체결

85년 역사 서울청과(주) 합류 안동스마트청과 디지털 장점

영양군은 국내 주요 농산물 유통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농업의 새로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

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도창 영양군수를 비롯하여 서울청과(주) 권장희 대표이사, 안동스마트청과(주) 백태근 대표이사, 영양고추유통공사 황찬영 사장, 영양농협 양봉철 조합장, 남영양농협 박명술 조합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영양군 내 우수한 농산물의 공급 체계를 강화하고, 판매 확대를 목표로 각 기업과

의 상호 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여 기업들은 영양군 농가의 소득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하며,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과 효율적인 유통 체계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8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청과(주)는 지난 2021~2022년 서울특별시 청과부부도매시장 법인 평가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영양군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안동스마트

청과(주)는 디지털 도매시장 플랫폼과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품질의 영양사과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영양군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와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 농업의 소득 향상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영양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권윤동 기자

안동,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 선정

2027년 1월 개관 목표로 추진 카페·소매점·팝업스토어 등 시설

안동시는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결과 당선작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선작은 경덕 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하나'이다. 이 설계는 안동시민·예천군민·이주민이 하나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안동시는 이번 공모전 당선작을 바탕으로 향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2025년 7월 착공, 2027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정공사비는 약 77억 원이다.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와 주민에게 신속하고 유기적인 행정서비스 및 복합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건물로, 갈전리 1181번지 일원에 연면적 2,229.04㎡, 지하 1



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건물 내부 구성은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카페·소매점·팝업스토어 등의 임대공간, 교육·문화 행사·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다목적실과 프로그램실,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지역 주민들의 문화·교육·복지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후속설계를 내실 있게 추진해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송명주 기자

예천군 가족사랑한마음 걷기대회 성료

군의원들 비롯 주민 2천여명 참석 총 약 3.5km 완주까지 1시간 소요

가을 정취가 가득했던 9일 오전 9시 30분, 예천군은 신도시페밀리파크 잔디광장에서 2024 예천군 가족사랑한마음 걷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예천군체육회와 주최·주관한 이번 걷기대회는 건강한 걷기 문화를 조성하고, 가족 사랑과 지역민 간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학동 예천군수와 강영구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지역 주민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다함께 몸풀기 체조를 한 후 힘찬 출발 신호와 함께 본격적인 걷기행사가 시작됐다.

걷기코스는 페밀리파크 잔디광장에서 시작해 △범우리공원 대래터널 △어린이숲속놀이터 △실개천을 거쳐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약 3.5km로, 완주까지는 약 1시간 가량이 소요됐다.

완주자 전원에게 완보기념품 증정, 걷기 행사



후에는 푸짐한 경품 추첨도 이어져 즐거움을 더했으며, 인생네컷 가족사진 부스에서는 가족, 이웃과 소중한 추억을 남기기도 했다. 이외에도 만들기 및 놀이체험, 댄스공연, 버블쇼,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다.

이철우 예천군체육회장은 "도심과 녹지가 조화로운 호망을 신도시의 아름다운 가을 경관을 만끽하며, 참가자 모두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가셨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명주 기자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POWERFUL DAEGU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250만 대구시민도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1991년 낙동강 페놀사고 이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은
30여년간 이어온 대구시민의 염원입니다.
대구시민의 안전한 물 마실 권리를 위해
안동댐 1급수를 대구로 직접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수돗물 걱정 없는 ‘맑은 물 대구’
‘맑은 물 하이웨이’로 만들겠습니다.**



 **맑은 물 하이웨이**

‘맑은 물 하이웨이’는 안동댐 직하류에서 수질 좋은 원수를 취수해 110km 길이의 도수관로를 따라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공급하는 사업입니다.